

한변, 북한인권법 시행 4주년 계기로 화요집회(기자회견) 재개

- ‘ ’ 전 유엔 북한인권조사위원장 및 ‘퀀타나’ 유엔 북한인권 특별보고관 ;

출범 등 북한인권법 이행 촉구

일시 : 2020. 9. 8(화) 11:30

장소 : 국회정문 앞

한변(韓辯)은 「북한인권법」 시행 4주년을 맞아 2016. 3. 2. 북한인권법 통과를 계기로 종료했던 화요집회를 내일(9월 8일 화요일)부터 다시 시작한다. 매주 화요일 국회 정문 앞에서 코로나 방역대책을 준수하며 기자회견 및 1인시위 등의 형태로 진행한다.

「북한인권법」이 제정되어 지난 4일로 시행된 지 4년이 지났음에도 불구하고, 북한인권실태를 조사하는 핵심기관인 북한인권재단의 이사조차 문재인 정부와 더불어민주당의 악의적 직무유기로 임명되지 않고 있으며 북한인권국제협력대사도 공식으로 남아있다. 그밖에 북한인권기록센터는 아직도 보고서를 내지 않고 있고, 북한인권기록보존소는 수사전문가인 검사를 배제하고 있으며, 남북인권대화도 실종되었다. 문재인 정부와 더불어민주당은 북한 정권에 의한 조직적이고 광범위하며 중대한 인권유린에 침묵하고 있다. 오히려 거꾸로 북한인권단체들에 대해 설립허가를 취소하거나 전례 없는 사무검사 등으로 탄압하고 있다.

국제사회의 북한인권 관계자들은 북한인권 문제를 외면하는 문재인 정부의 직무유기에 관해 일제히 비판을 가했다. 마이클 커비 전 유엔 COI 위원장, 토마스 오헤아 퀀타나 유엔 북한인권특별보고관, 미국 내 북한 인권운동의 대모인 수잔 솔티 북한자유연합 대표 등은 그러한 내용의 동영상을 한변에 보내왔다.

한변은 지난 8월 24일 국회의장, 민주당 원내대표, 국민의 힘(통합당) 원내대표, 통일부 장관을 상대로 '북한인권재단 이사 추천 촉구 및 면담 요청' 공문을 발송했으나, 8월 31일까지 국회의장, 민주당 원내대표, 통일부 장관은 회신조차 보내지 않고 있다. 이에 한변은 31일 '북한인권법 사문화하고 공수처법 개악 추진하는 정부여당 규탄한다' 보도자료를 배포하고, 9월 1일부터 4일까지 국회 정문 앞에서 1인 시위 및 기자회견을 진행하였다. 특히 9월 4일은 북한인권법 시행 4주년 기념 기자회견을 진행했다.

한변은 과거 북한인권법 통과를 위한 화요집회를 2014. 10. 14.부터 시작하여 매주 화요일 단독 또는 타 단체와 함께 개최해 2016. 3. 2. 북한인권법 통과 시까지 74회 진행한 바 있는데, 앞으로 북한인권재단 이사 추천 등 북한인권법의 정상집행이 될 때까지 화요집회를 다시 진행할 예정이다.

2020. 9. 7.

한반도 인권과 통일을 위한 변호사모임(한변)

회장 김태훈